

## 단색화 열풍은 계속될까

3 March, 2016 | 정유진 기자

---



/국제갤러리 제공

단색화가 정창섭, 조용익 개인전

단색화의 인기가 올해도 계속될까. 두 단색화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.

단색화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정창섭(1927~2011)의 개인전이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27일까지 열린다. 이번 전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표작 30점으로 이뤄져 있다.'그리지 않은 그림'으로도 불리는 정창섭의 작품은 한지의 원료인 닥을 물에 불려 캔버스에 펴 올린 뒤 손으로 두드린 작품<사진>. 자연스러운 닥 주름이 멋스럽게 올려져 있다. 먹이 한지에 퍼져 나가는 느낌을 나타낸 70년대 '귀'시리즈도 공개된다.